

낙도·벽지 교사들 짐 싣다

새 교원승진 규정, 가산점 줄고 근평은 늘어 승진 불리

농어촌 교육 황폐화 가속 우려

교육부가 마련한 새 교원승진 규정 때문에 전남지역 교사들이 도서벽지와 소규모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려되며 농어촌 교육 황폐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새 교원승진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승진에 반영되는 도서벽지 가산점이 줄고 근무평정(근평) 반영 기간이 10년으로 늘어 학급수가 많은 큰 학교 교사들에 비해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전체 가산점 만점을 18.5점에서 13점으로 낮췄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전근내신 신청(근무지 변경요청)을 접수 마감한 결과, 초등학교 ▲신인 78명

▲진도 46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명이 늘었다. 신안·완도도 146명의 교사가 진출을 희망한 반면, 도시에서 신안·완도로 전임을 희망한 교사는 전년도 57명에서 42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섬 탈출'이 빚어진 것은 현재 농어촌진흥학교 근무경력에 1.25점이 더 추가되고 근무 가산점은 6점인데, 향후 전체 가산점이 줄어들면 농어촌·도서벽지 가산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안 중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윤모 교사는 "어떻게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산점도 없고, 근무평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데 누가 벽지 학교에 가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완도 모 중학교 최모 교감도 "근평 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높아지고 도서벽지 가산점이 낮아져 교사들이 도서벽지 근무를 채우지 않고 큰 학교로 나가려는 경향이 높아졌다"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은 새 승진규정이 시행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았던 도서벽지 가산점이 낮아지면 교사들이 근무에 비중을 더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산점 이외에 교사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근무평정이다. 현재 운모 교사는 "어떻게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산점도 없고, 근무평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데 누가 벽지 학교에 가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교원 승진 규정	새 교원 승진 규정(안)
경력점수 90점 (승진연한경력 25년)	경력점수 70점 (승진연한경력 20년)
근평점수 80점 (최근 2년 근평 반영)	근평점수 100점 (최근 10년 근평 반영)
연구점수 30점	연구점수 30점
가산점 18.5점	가산점 13점
위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위 1·2배 선발 자격 연수 통해 승진 차별	좌동

특히 소수점 이하 차이가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들 점수 차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2년 근평을 승진에 반영하고 있으나 새 규정에서는 10년 근평을 반영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교사들의 농어촌·도서벽지 근무는 사실상 승진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최해희기자 lion@kwangju.co.kr

부동산업자 등 6명 제작추적
공무원 등 17명은 통신 조희

세해지구 계획 유출 수사

'광주 세해지구 택지개발계획 사전 유출 사건' 수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은 사건과 관련 있는 부동산업자 J(60)씨 등 6명의 계좌 추적이 나왔다.

J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 광주시청 건축주택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세해지구 택지개발 관련 문건을 직·간접적으로 건네받아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해당 지역의 토지를 대거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일 이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담당 공무원들과 급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 방침이다.

경찰은 당초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해 32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은 가족들은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 6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경찰은 또 광주시 공무원들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하거나 발부받아 5개 통신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통신조회에 나섰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사회복지 지원 '만남의 밤' 광주시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3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00여 명의 사회복지 관계자·후원 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결연·후원자 만남의 밤' 행사를 가졌다.

무안 가정집 불 장애인 부부 숨져

30일 새벽 4시께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목조 한옥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방에서 자고 있던 이모(83)·김모(여·75)씨 부부가 불에 타 숨졌다.

불이 나자 소방차 7대와 소방대원 16명이 출동했으나 신고가 늦어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고, 불은 가옥 18평 전체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을 처음 신고한 이웃 주민은 "새벽에 나와보니 이미 이씨 집이 검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 부부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했으며, 뇌졸중까지 앓아 제때 피하지 못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스팸여왕 김하나' 잡고보니 남학생

발송 이메일 16억 통

'스팸여왕 김하나'로 약명을 떨쳤던 스팸 발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남자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부산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박모(21)씨는 '김하나'라는 가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핫메일(hotmail)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해 스팸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원도 운영체제를 개발 언어인 '델파이'를 2개월간 연습하면서 만든 스팸 프로그램이었다.

박씨가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만난 업자 4명에게 팔아 쟁긴 돈은 120만원. 지난 2003~2004년 '김하나' 스팸 프로그램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수조(兆)

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북서울 모 대학 컴퓨터 공학과를 휴학한 그는 대구의 한 중소기업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도 직장 선배 권모(27)씨와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등의 서버 318대를 해킹, 100여 차례에 걸쳐 16억 통의 스팸을 보냈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해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토록 하는 '피싱' 수법을 이용, 가미해 1만2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추적 끝에 30일 박씨와 권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억원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대출업자 박모씨를 수배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구 조성원가 공개해야"

광주지법 판결...토공 "항소하겠다"

광주 수원지구 택지개발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광주 수원지구 택지개발 지역 주민인 박모씨가 '수원지구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공사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익법인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어도 경쟁상·영업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경우는 적다"며 "토지공사가 공용토지의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 또는 위탁받은 만큼 조성원가를 공개해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토공의 이익은 토지의 공급가격에서 취득가액과 사업비를 공제한 것인데 취득가액은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해, 사업비는 '시장의 가격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귀속돼야 할 성질"이라고 덧붙였다.

토공 측은 그러나 "조성원가 산출 내용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수원지구는 조성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2006년

3월24일) 이전인 2004년에 이미 공급을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1월 "토공이 142만 평(2만6천 가구 수용)의 수원지구 토지 분양을 통해 5천억여 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응급실 직원 퇴원 조치

환자 귀가 중 사망

장성경찰은 "지난 26일 장성 J병원 응급실 직원이 퇴원조치를 내려 환자 오모(42)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업무부장, 구급차 직원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씨의 시신을 부검, 사망원인이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임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오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20분께 구도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귀가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 안에서 숨졌다.

/장성=고재민기자 jbgoo@



광주광역시 중서구

광주광역시 중서구... (7042)

수원지구 조성원가 공개해야

시정에 배다른 전복 복지시설로... (7042)



응급실 직원 퇴원 조치

환자 귀가 중 사망... (7042)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농어촌 및 도시 가정을 위한 전기보일러 보급사업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다양한 생활 편의를 위한 특혜를 드립니다

- ▶ 다양한 심야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 전원지역 설치비용 지원.
- ▶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 설치비용 지원.

부품도 지원 가능합니다.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경동보일러 **062) 673-4981**
전남 010-9469-0973

세학년 세학기 **책상SET 특별전**

신학기 준비를 위한 책상, 의자, 조명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조명, 등받이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조명, 등받이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